민자투자사업 추진 강진 하수관거 정비공사

"곳곳 사고 위험" 민원 빗발

경찰, 위법사실 알고도 단속 '미적'

민자투자사업(BTL)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진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나 강진군 등 관계기관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강진읍 일대 45㎞의 하수관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 오는 2009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오·폐수의 강진만 유입을 막기위한 이번 사업에는 모두 302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20㎞ 구간의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현장에 안전시설물들이 규정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매일 10~20건의 전화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공사시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주민 사고 건수만도 4건에 이른다.

민원유형도 ▲공사구간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 현장 사고 ▲도로 복구 엉망 ▲교통 혼란 등 다양하다.

지난달 29일 하수관거 1차 도로 복구 작업중인 강진읍 해태유업 4거리에선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해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강진군청 방향인 왕복 2차선 도로 중 200여m가 하수관 공사로 폐쇄됐으나 규정상 도로의 시작과 끝 부분에 설치해야 할 '도로 좁아짐' 등을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모(40)씨는 "왕복 2차선 도로였는데, 갑자기 주행차선이 공사구간으로 돼 있어 당황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했는데, 맞은편에서 대형 버스가 오는 바람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대해 장경록 강진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루 평균 10여통이 넘는 주민 불편 신고 전화를 받고 있지만, 군에선 관리 감독 권한이 없고, 행정업무만 돕도록 돼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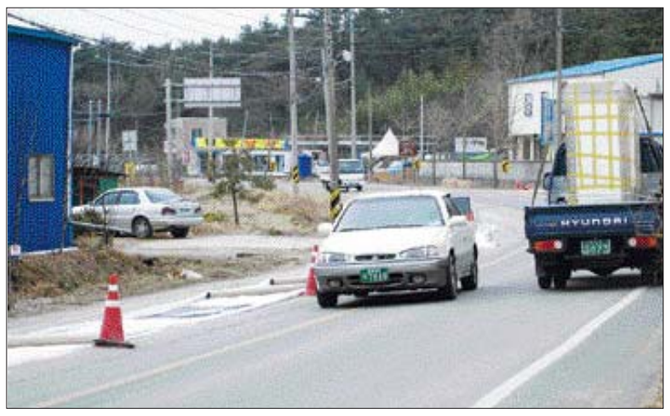
단속·감독 기관인 강진경찰과 환경관리공단도 위반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 안전표지판 미설치는 도로교통법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그동안 강진경찰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강진경찰 관계자는 "지역발전 사업이다보니 단속보다는 계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아 고민"이라며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단속 하겠다"고 했다.

이근영 환경관리공단 감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존에 공사중이던 구간을 빨리 마무리하려다 보니 읍 전체가 공사구간이나 다름없다"며 "공사를 동시에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이 하수도나 도로·철도·학교 등을 짓고 매년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아 투자비를 회수한다.



지난달 29일 강진군 강진읍 해태유업 4거리에서 강진군청 방면으로 접어드는 왕복 2차선 중 하수관거 공사로 1개 차선이 폐쇄되면서 차량 두 대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리산 고로쇠 수액 마시러 오세요"

지리산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구례지역에서는 간전·토지·산동면 등 270여 농가에서 고로쇠 70만 ℓ를 생산, 20여억원의 농가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는 18 ℓ 한통에 5만원, 9 ℓ 2만5천원, 4.5 ℓ 1만2천500원에 판매 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보성군·서울대 공동

녹차 효능분석 가공식품 개발

보성군이 서울대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성녹차의 효능 연구와 가공식품 개발에 나선다.

보성군은 지난달 31일 서울대 생명공학 공동연구원과 보성녹차 신기능성 성분·효능 분석 및 식중독방지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보성군과 서울대 생명공학 연구원은 녹차가 인간 면역체계에 미치는 구체적 근거제시와 녹차 추출법 개선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공정개발, 보성녹차의 식중독 방지 효과 분석 및 이에 따른 시장 분석과 마케팅 연구를 1년간 수행한다.

또 미래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화를 유도, 소비자 신뢰구축 및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생산의 37%를 차지하는 주산지로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식품개발과 차밭 트리 설치 등 관광 상품화에 앞장서 왔다. 보성 녹차는 지난해 소비자가 뽑은 세계 브랜드 대상을 비롯하여 농림부 주최 농·식품 파워브랜드 최우수상, 일본 시즈오카 차박람회 은상 수상 등 품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장흥, 목재문화 체험장

'우드 랜드' 조성

장흥 억불산에 '우드 랜드'(목재문화 체험장)가 들어선다.

장흥군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장흥읍 우목리 30~40년생 편백 숲 13만4천832㎡부지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전시차원을 넘어 다양한 목재 제품을 만들며 즐길 수 있는 현장체험 위주 공간으로 건립된다.

군은 지난해 진입로 개설 및 건축물 부지 조성을 한데 이어 올해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외국의 주택 사례 등을 비교 전시할 수 있는 목재문화 전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4월부터 한옥 통나무집, 황토흙집 등 집짓기 체험학교와 책상이나 의자 등 가정에서 필요한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목공소 체험장을 운영하게 된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개발사업지 부동산 투기 단속

전남도, 중개업소 1천여 곳 조사

전남도가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혁신도시 건설,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공단지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중개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3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7곳에 과태료를 물린 것을 비롯해 등록취소 6건, 경고시정 1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채희종기자 chae@

고소·고발에 괴문서 살포…

나주시 '시정 발목잡기' 몸살

나주시가 일부 주민들의 무차별 고소·고발에다 괴문서 살포 등 시정 발목잡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 저녁 남평읍 아파트 단지 일대에 현직 단체장을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괴문서가 무차별 살포됐다. 이 괴문서는 '신정훈 시장과 무소속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남평읍민을 분열시켜 결국 남평 몫이었던 고(故) 김덕수 시의원의 자리를 다른 지역에 넘겨줬다' '남평읍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는 등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전직 공무원 출신 A모 씨 등 주민 3~4명도 번갈아가며 시정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과 진정을 제기, 2년여 간 진정건수가 2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와 감사원, 행자부와 국가청렴위원회 등은 물론 검찰, 법원, 경찰 등 가리지 않고 투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진정서는 200여 명의 서명자 가운데 90여 명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유령 인물로 채워지는 등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나주지역에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새얼굴

"지역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 최선"

전병덕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지역 농협의 자립기반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신임 전병덕(54)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은 "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로 확대와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함평 월야 출신인 전 지부장은 전남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73년 농협에 입사, 전남지역본부 기획지도·회원지원팀장과 완도·보성군 지부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정심(54)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으며 취미는 바둑.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